

문화산책

윤익

광주미술관장



러시아 출신 화가 마르크 사캬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지상에서 두 발을 떼고 연인과 함께 하늘을 동동 떠다니는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현실의 무게감이나 중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환상적인 표현과 색채는 보는 이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21세기 현대 사회는 사캬의 화폭과는 사뭇 다르기만 하다.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지상에서 발을 뿔 수 없을 만큼 육중한 성과주 의와 속도전의 중력에 짓눌려 살아간다.

손가락 하나로 세계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인공지능이 복잡한 업무를 초 단위로 처리해 주는 편리한 시대를 맞이했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해져 있다.

퇴근 후에도 울리는 스마트폰 알람, 타인의 SNS 속 화려한 삶의 비교,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무한 경쟁의 틈나바퀴는 현대인의 영혼을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는 몸의 통증에는 지극히 민감하다. 열이 나면 즉시 감기약을 찾고, 작은 통증만 느껴져도 병원으로 달려간다. 해마다 정기 종합검진을 받으며 세밀한 이상 유무를 살피는 데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는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기조차 힘겨운 번아웃 증

“문화예술, 지친 현대인의 영혼을 보듬다”

후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불안장애, 밤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이러한 증상들은 단지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발생하거나 ‘남들도 다 참고 사니까 지나갈 일’이 아니다. 몸이 한계에 달해 기질을 하듯, 마음에 과부하가 걸렸으니 잠시 멈추어 달라고 내지르는 비명이자 자연스러운 경고 신호다. 이를 방지하면 신체 면역력 저하와 심혈관 질환 등 육체적 병증으로 전이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붕괴되어 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문화예술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저서에서 “예술은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결핍을 보완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종의 처방전”이라고 말했다.

미술관과 공연장은 현대인의 영혼을 치료하는 ‘영혼의 병원’인 셈이다. 바흐의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콘서트홀에 앉아 있거나, 조용한 미술관에서 아름다운 작품 앞에서 본 경험은 현실의 소음과 업무적 압박을 아득한 저편으로 몰라나게 한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여가 활동이 아니다. 과도한 자극으로 가득 찬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여백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정신적 환기’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이 주는 엄숙한 위로를 느끼고, 소설 속 인물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공간의 경험은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앙금을 씻어내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오늘날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별적 관리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지수와 직결되어 있다. 한국은 세계

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유엔(UN) 산하 자문기구가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 등에서 집계되는 국민 체감 행복지수는 OECD 주요국 중 늘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턱없이 낮다는 뜻이다. 그 주요 원인은 행복의 기준을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적 조건, 즉 ‘남들만큼 가져야 한다’는 물질적 소유와 비교에 두기 때문이다. 결국 내면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삶을 바라보는 개인의 ‘관점 전환(Mindset Shift)’이 필수적이다. 조건이 갖춰져서 행복할 것이 아니라, 삶의 소소한 순간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신호에 집중하려는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란 현실의 어려움을 모른척하는 대책 없는 낙관론이 아니다. 비가 오는 날 축축하게 젖은 바닥을 불평하기보다, 빗방울이 창문에 그려내는 투명한 수채화를 감상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뜻한다. 예술을 즐기는 시선이 바로 이와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경쟁 속에서 숨 가쁘게 내달리고 있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내 마음은 지금 안녕한가.”

주말 아침,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고 가까운 미술관을 찾아 작품이 건네는 조용한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볼 일이다. 도서관의 차분한 공기 속에서 책 한 권을 펼쳐 들고 스스로의 내면을 다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긍정의 시선으로 나의 하루를 보듬는 작은 노력, 이러한 문화적 자극이야말로 수많은 압박과 소음 속에서 나를 지키고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을 되찾는 가장 지혜롭고 멋진 길이다.

기고

남농 허건이 전하는 예술적 성취와 경제적 안정의 조건

김지훈

전남대 미술학과 외래교수
미술학 박사



화가이면서 교육과 연구, 전시 기획을 병행해 온 나에게 예술적 성취와 경제적 안정의 관계는 오래된 질문이었다. 예술가는 가난해야 순수한가. 작품의 가치와 안정된 생활은 함께 이를 수 없는가. 한 영재교육원에서 초등학교생들과 미술 활동을 함께하던 어느 날, “나중에 화가가 되고 싶니?”라고 물었다. 상당수가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까닭은 뜻밖에 비슷했다.

“가난하니까요.”

화가와 가난을 연결하는 관념이 어린이아들에게까지 퍼져 있음을 실감했다. 미술영재교육의 목적은 예술가 양성만이 아니지만,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화가를 진로에서 미리 자문다는 사실은 씁쓸했다. 예술적 성취와 경제적 안정은 정말 양립할 수 없는가. 남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룬 화가는 없을까. 이 질문의 끝에서 만난 인물이 남농 허건(1908~1987)이다.

남농에게는 ‘소치 허련의 손자’, ‘운림산방 3대 화가’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이러한 가문의 명성이 그의 경제적 안정까지 보장해 준 것은 아니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궁핍 속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고통도 겪었다. 그에게 그림은 예술적 이상인 동시에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절박한 노동이었다. 그렇다면 남농은 어떻게 빈곤을 딛고 화업을 일굴 수 있었을까. 나는 남농의 가족과 제자, 그와 가까이 지낸 지인의 기억을 듣고 기록을 살폈다.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갈수록 남농의 성취가 그림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생계의 현실과 화단의 인정, 작품의 수요와 거래, 제자 교육, 사람들과의 관계, 지역사회가 그의 화업을 함께 만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남농화실’이 있었다. 이곳은 작품을 창작하고 제자를 교육하는 곳이자 작품이 거래되는 공간이었다. 화랑 관계자와 애호가, 문학인과 예술가는 물론 교육계·언론계·지역사회 인사들이 드나드는 교류의 장이기도 했다.

한편 남농의 화업 형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아내 홍막여였다. 그는 가계를 꾸리고 화실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제자와 방문객의 식사와 돌봄을 맡고 생활 질서와 인간 교육에도 깊이 관여했다. 이처럼 홍막여는 창작과 교육, 생활과 교류가 결합한 남농화실의 성립과 지속을 가능하게 한 공동 주체였다.

남농은 화실을 찾는 사람들을 환대하며 관계를 넓혔다. 그곳에서 형성된 관계망은 작품이 지역을 넘어 유통되고 폭넓은 애호가층과 만나는 기반이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작품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적 안정도 뒤따랐

다. 한 연구참여자는 인터뷰에서 남농을 “화가 재벌”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가난했던 화가가 작품을 통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넓혀 갔다는 인상을 압축한 말이다.

남농은 그 성취를 개인의 명성과 축적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다. 후배 예술가를 지원하고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작품과 수석을 기증했다. 운림산방을 복원하여 기부채납하고 남농기념관을 건립하여 지역의 문화적 기반도 넓혔다. 지역사회가 그의 화업을 지탱했다면, 남농은 문화적 토대를 넓히는 것으로 화답했다.

그의 삶은 예술적 가치와 경제적 성취가 반드시 대립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정당한 평가와 거래로 생활이 안정될 때 창작도 지속될 수 있다. 예술가에게 가난을 견디라고 요구하면서 좋은 작품을 기대하는 것은 가혹하다.

예술가는 자신을 둘러싼 조건을 읽고 사회와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정책과 제도는 창작 공간과 발표 기회를 넘어 예술가가 안정적으로 창작할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도 예술가를 일시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로 바라보아야 한다. 예술가의 성취는 개인의 재능과 희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창작이 가능한 생활 기반, 예술계의 협력과 관계망, 제도적 인정과 사회사의 지지가 함께할 때 창작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남농 허건의 삶이 우리 사회에 전하는 예술적 성취와 경제적 안정의 조건이다.

취재수첩

삼성전자, 37년 만의 투자가 반가운 이유

이승홍

산업경제부 부장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에 2400억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1989년 광주사업장이 문을 연 이후 37년 만의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다. 지역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광주 제조업을 대표해온 삼성전자가 다시 광주에 투자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번 투자는 과거와 조금 다르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을 만드는 생

산시설이 아니다. 지난해 인수한 독일 공조 전문기업 플렉트그룹의 기술을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등에 들어가는 냉각·공조장비를 만든다.

광주사업장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AI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서버를 식히는 기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고성능 서버가 뿜어내는 열을 기존 방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액체 냉각 같은 새로운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광주에서 생산하려는 냉각수 분배장치(CDU)도 그중 하나다.

그렇다면 이번 투자를 단순히 ‘삼성 공장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볼 일은 아니다. 광주가 오랫동안 쌓아온 가전 제조 경험을 새로운 시장으로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있다.

대기업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기업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대기업 투자 때마다 협력업체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실제 효과가 지역 곳곳으로 퍼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공조장비에 들어가는 부품과 제어장치, 설비와 유지보수 등에서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 관련 기업을 광주로 끌어들여 기존 기업의 기술 전향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투자지원 전담팀을 꾸리기로 한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 기업의 인허가를 빨리 처리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삼성과 플렉트그룹 주변으로 어떤 기업을 붙일지, 지역기업이 어떻게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37년 만에 찾아온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광주 제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는 결국 지역이 이 투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키우느냐에 달려있다.

사설

삼성, 광주서 공조시스템 생산…그 의미는

HVAC는 Heating(난방), Ventilation(환기), and Air Conditioning(공기조화)의 약자로, 냉난방공조시스템을 뜻한다. 즉, 건물 안의 온도, 습도, 공기질을 종합적으로 조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오피스 빌딩, 병원, 학교, 쇼핑몰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의 온도와 공기질 관리에 활용돼 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서버와 그래픽처리장치의 발열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HVAC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광주에 2400억원을 투입해 첨단산업용 HVAC제품을 생산한다고 한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과 ‘공조 생산라인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인수한 독일 공조 전문기업 플렉트그룹의 생산라인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생산라인은 북구 오통동 광주사업장 제3캠퍼스 유휴부지에 연면적 2만1800㎡ 규모에 들어서며 올해부터 시설 조성에 들어가 2028년 초 본격 가동된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AI 데이터센터용 냉각수 분배장치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공기 냉각용 팬 윌 유닛, 컴퓨터를 공기처리장치 등 핵심 HVAC 제품이 생산될 예정이다. 1989년 광주사업장 설립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이번 투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유럽 공조 전문기업인 플렉트그룹을 인수한 이후 양사의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결합하는 첫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그동안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광주사업장이 이번 투자로 AI 가전과 첨단산업용 HVAC를 생산하는 글로벌 제조거점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

HVAC 생산이 확대될 경우 공조계 제조업체뿐 아니라 열교환기와 냉각장치, 제어장치, 센서, 배관, 전장부품 등 연관 산업에도 수요가 발생,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새로운 첨단산업 시장이 지역기업에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또 이와 연계해 공조계 제조부터 부품·장비까지 이어지는 지역 공조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전남권 의대 신설, 현 상태로는 답이 없다

‘흑시나’하면서 지켜왔는데 역시나였다.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통합이 끝내 무산된 것이다.

양 대학이 교육부가 정한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마감일인 20일까지 ‘대학 통합’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한 공동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은 또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사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은 36년 넘는 지역의 숙원이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의대가 없던 전남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의대 설립을 건의·요구해 왔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묵살되기 일쑤였다.

그러다 정부가 양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2030년까지 의대정원 100명을 배정키로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양 대학도 2024년 11월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큰 틀에서 대학 통합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통합대학본부와 대학병원, 특히 의과대학 소재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양 대학 통합문제는 ‘치킨 게임’이 됐다. 두 대학 집단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가 큰 피해를 보는 ‘벼랑끝’ 경쟁이 돼 버린 것이다.

민형배 통합시장 등이 나서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양 대학은 자신의 주장을 굽힐 줄 몰랐다. 여기에 지역민들이 가세했고 지역 정치권까지 이에 동조하면서 이제 전남 동·서부권 갈등으로 확산됐다. 이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재량권이 없는 상태가 돼 기존안을 밀어붙일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다른 협상안을 제시할 수 없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양 대학의 통합 무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과대학 소재지 등 주요 내용이 빠졌지만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규모, 지자체 지원 계획 등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 의과대학 유치의 절실함을 표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후보지에 경북도 포함돼 있는데다 계획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남권 의대 신설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정부로부터 ‘전남권 의과대 신설’이라는 약속까지 확보한 지역 숙원사업이 고질적인 ‘소지역주의’와 ‘극한 이기주의’의 벽에 막혀 또 다시 표류하게 된 것이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사 장 정임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산업경제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광남)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